

“어린이 등하굣길 더 안전해져요”

전북교육청, 도내 160개교 204곳 교통안전시설 확충·옐로카펫 20곳 설치

어린이 등하굣길이 더욱 안전해진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5일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에 옐로카펫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160개 학교에 교통안전시설(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204곳을 확충할 예정이며, 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구간 설치 비용의 2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시설 설치의 의무화되면서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이 확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다발 초등학교 인근지역 20개소에 옐로카펫을 설치

한다.

옐로카펫은 보행자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설치되는 안전 시설물의 한 종류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할 때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미려한 구역이다.

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미터 주출입문에 삼각형 모양으로 노란색 색칠해 설치한다.

대상 지역은 6월 중에 선정할 예정이며 교차로나 곡선부 등의 사각지대가 있는 경우 우선 선정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등하굣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이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고 교통지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도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박경수)이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설을 대폭 보강해 호평을 받고 있다.

장애학생 시설보강 ‘호평’

전북대 도서관, 전용책상·전용 PC 등 설치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박경수)이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설을 대폭 보강해 호평을 받고 있다.

5일 전북대에 따르면 중앙도서관은 국립대육성사업 일환으로 장애 학생 시설 개선사업을 펼쳐 최근까지 장애인에 위한 주차 공간을 늘리고 자물쇠 설치 및 출입게이트 확장 등을 통해 장애학생 출입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장애 학생의 학습 편의성을 위해 전용책상을 설치했고,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서도 컴퓨터 화면을 낭독해주는 프로그램인 ‘스켈리더’를 설치한 최신 컴퓨터를 각 층마다 배치했다. 문서 낭독을 위해 전용 스캐너도 설치해 서비스하고 있다. 도서관 각 시설 안내를 위한 촉지도 및 안내 사인 역시 모두 개

선했다. 이번 사업으로 장애 학생들은 중앙도서관 각층에 설치된 전용 PC를 통해 도서관 구축 학습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지하 1층과 3층에 설치된 전용 책상과 전용 스캐너를 통해 우수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

박경수 도서관장은 “우리대학에서는 장애대학생 학습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환경개선”을 올해 전북대 혁신과제로 추진해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 거점 대학 도서관의 지식정보센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이러한 시설개편으로 대학뿐 아니라 지역사회 장애인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중시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코로나 극복 희망 릴레이 전주대 왕석순 교수 동참



전주대학교 왕석순 교수가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지난 4일,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희망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캠페인’은 코로나 19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관계자 및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처음 시작한 캠페인으로, 응원 메시지를 작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2명의 다음 주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주대 이호인 총장도 지난 5월, 군산대 박병선 총장의 지정으로 캠페인 주자로 참여한 바 있다.

왕석순 교수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 관계자들의 헌신을 기초로 모든 국민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참여가 코로나 19 극복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며 “만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그리움과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학업에 임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왕석순 교수는 사범대학 학장 및 교육대학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주대 ‘여교수회’ 회장 및 한국가정교육학회, 한국이동가족복지학회, 한국생활과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홍순직 총장이 코로나19대비 대학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행정지원·관리처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학 방역 ‘구슬땀’ 행정지원·관리처 직원 위로

전주비전대, 서프라이즈 이벤트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코로나19 대학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행정지원·관리처 직원들을 격려하는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전주비전대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감염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며 매일 오전과 오후 2타임 대학 강의실, 도서관 멀티미디어 강의·융합컨퍼런스 등을 방역하고 있다.

특히 전주비전대학교에는 코로나19 극복에 숨은 주역들이 있다. 바로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방역과 물품지원에 구슬땀을 흘리는 대학 행

정지원·관리처의 직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홍순직 총장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충격과 대학 구성원의 일상을 수시로 변하게 하지만 학생성공 비전이란 하나의 목표로 전체 구성원이 협력해 나가는 전주비전대학교만의 경쟁력을 통해 대학의 주인인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고, 위기를 극복해 한 차원 높은 대학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홍 총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나눔과 희생의 열정을 보여주는 행정지원처 최형주 처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대비 물품구매지원담당은 “보양식과 과일디저트로 나눔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며 “코로나19로 업무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지만 학생과 대학방역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대비IT팀’을 조직해 수시로 감염 관련 다양한 의제들을 점검하고 추진해왔으며,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대학정책들을 기획하고 방문자들이 출입할 때 발열체크가 완료됐다는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은성기자

전주영어체험학습센터 ‘영어체험도 온라인으로’

다양한 주제로 흥미 유발

전주영어체험학습센터(원장 김숙, 이하 전주영체)는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5일까지 전주 관내 초등학교 5학년 희망 학생(총 58명, 용의초 외 21개교)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1대1 전화 영어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원어민 보조교사가 직접 전화영어수업 교재를 제작해 전주영체 홈페이지(jv.a.kr)에 이를 탑재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켰으며, 수준별로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주영체는 원어민 보조교사 8명과 초등 교원 5명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두려움 해소와 글로벌 리더 양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는 전주교육지원청 소속 영어체험학습센터다.

전화영어수업은 자기 소개하기, 의문

사 질문에 대답하기, 일상적인 활동물기 등 자연스럽게 영어와 친숙해질 수 있는 흥미로운 내용으로 구성했다.

또한 온라인 동영상 수업자료(총 16편, 편당 30분 내외)를 자체 제작하고 전주영체 홈페이지에 이를 업로드해, 코로나 19로 인해 입소가 힘든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각 학교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자료를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도 있고 학생 스스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영어교재도 제공했다.

원어민 보조교사의 일방적 수업이 아닌 소통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강조하고, 또 다양한 주제(숫자, 요가, 지리, 정원 가꾸기, 묘사하기 등)를 다뤄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를 유발해 의미있는 영어학습이 이뤄지도록 했다.

/정은성 기자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